

전문가 칼럼

빅데이터 시대의 사생활 보호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늘날 인터넷 기업의 수익구조는 온라인광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터넷 기업은 비록 이메일,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배너 광고, 키워드 검색광고와 지역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운영하여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 한정된 광고 지면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최적의 시간에 광고로 제공하여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경쟁력이자 생존의 기반이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기업은 보다 많은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하고, 보다 오랜 시간동안 머물 수 있도록 그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특화시켜 배치하며, 이용자의 특성, 즉, 성별, 연령대, 관심 있는 신문기사, 주로 검색하는 정보, 현재 머무는 위치 등을 조합하여 이용자가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광고를 노출한다.

결국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와 이용 행태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여 분석하고 이를 축적해 나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 기업의 목표이자 본능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이며 무차별적인 개인의 식별 정보와 행태 정보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영역에 대해 누군가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이러한 불안감의 동조가 급속히 전파되기도 한다. 인터넷이 등장하던 1990년대 후반

에는 이렇게 온라인 광고 기법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태와 문화는 개인의 생활 대부분을 인터넷과 그 안에 펼쳐진 클라우드라는 저장공간에 의존하고 있고, 인터넷 공간에 극히 사적인 모습이 온전히 담겨 있다. 게다가 개인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했던 매우 도발적인 상상들도 이메일 등의 기록에 은연중에 투영되어 남아있는 지경이다. 이렇게 사적이며 생각으로만 존재한 상상의 단편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대문 밖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 로그가 일정 기간 남아있고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상황은 이용자에게 개인의 영역에 대한 침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침해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저항을 유발하여 결국 온라인 광고의 실패로 이어진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용자의 사적 영역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사적 공간에서의 자유와 보호 받는 즐거움을 읽어내지 못한 인터넷 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한 경제, 사회의 폭발적 변화에서 그 안에 인간의 사생활의 양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적용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 시에는 하나하나 사이버 영향도를 측정하여 재점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은 아닐까?

인터넷 공간에서 거대한 개인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개인의 생활 행태의 변화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기업은 주어진 환경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없으니 바닥부터 완전히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벌어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저항과 불만을 보아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니 그 근본에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발달된 기술 속에서 그 내면의 인문학적 영감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기업의 문화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경쟁력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기업에 정착할 때 워렌과 브랜다이스가 120년 전에 주장한 개인과 자산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국내외 동향

국내 윤리경영 동향

대기업보다 5배 높은 중소·중견기업 사회공헌도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사회공헌도가 대기업에 비해 매년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공헌평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4년 중소·중견기업 국가·사회공헌도' 평가를 실시하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사회공헌도는 13년간 1.6배 증가했고, 대기업에 비해 매년 4~5배 수준의 공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창출공헌과 국민소득공헌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이 90%이상을 차지했다.

- 출처: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94992

2014년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응모

대한건설협회가 '제4회 2014년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위한 응모를 공고했다. 응모대상자는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기업으로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 등 건설업과 감리, 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업이 모두 포함된다. 금년부터는 건설산업 전반에 윤리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건설용역업까지 포함하여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업계 내의 평가·보상을 통해 건설업계의 윤리경영 확산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5801>

자산 상위 30대 그룹 중 18곳, 올해 안전·환경 투자 늘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4월 공정위 발표, 금융그룹 제외)을 대상으로 '2014년 안전·환경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18개 그룹(62.1%)이 올해 안전 및 환경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릴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한 18개 그룹은 그 이유로, '최근 안전·환경 문제의 관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연초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에 따른 투자 확대', '시설 노후화 및 교체시기 도래' 순으로 제시했다.

- 출처: http://www.fki.or.kr/issue/economy/View.aspx?content_id=7731cf25-e9b7-48e7-820c-6d803b5c284d&cPage=&search_type=&search_keyword

해외 윤리경영 동향

'2014 동아시아 30' 선정 추진

'아시아 사회책임경영전문가위원회(Asia CSR Expert Committee)'는 사회책임경영 인식 확산과 우수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두고 2010년부터 한·중·일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이 편입된 '동아시아 30'을 발표하고 있다. '2014 동아시아 30'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에 각 나라의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국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 10곳씩, 총 30곳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57512.html

적극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는 일본 기업들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이 협력사의 사회책임경영과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제품의 환경영향을 관리하려면 원료와 부품의 환경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일본은 협력사들의 환경영향을 관리하며 점차 인권 및 노동환경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관리로 발전시켜왔다. 2011년 유엔에서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과 올해부터 적용된 미국의 분장광물 규제가 맞물려 일본 기업들이 더욱 관심을 쏟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책과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57522.html

건설업계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부터 건물 노후화를 방지하는 원격 감지 시스템까지 빅데이터가 건설 분야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호주의 위험분석 업체인 사넵터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미국의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는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건설 분야의 경우 리스크 관리, 안전 관리와 같은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http://www.it.co.kr/news/mediatitNewsView.php?nSeq=2715228>



윤리경영 체계 가이드

이번 호 윤리경영 체계 가이드에서는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윤리경영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평가제도를 통해 파악하는 윤리경영의 현 위치

지속적으로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다. 윤리경영 전 과정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업들은 윤리경영 평가를 위하여 여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적인 외부지표를 이용하기도 하고, 기업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기업 고유의 내부지표를 이용하기도 한다.

- 윤리경영 외부 평가지표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윤리경영을 평가하면 같은 평가지표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여 현재 자사의 윤리경영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기업들의 윤리경영 현황과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외부 평가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윤리경영 외부 평가지표

구분	제정기관	특징	구성항목	내용
ISO 26000	ISO (국제 표준화 기구)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있어서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규정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국민권익위원회	윤리경영 진단 및 가이드 제시	방침, 조직 및 시스템, 실행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의 세부 항목별 자기진단. 개선 방향 제시
KoBEX-SM	산업통상자원부	윤리 및 지속경영 지표	CEO, 작업장, 지배구조, 협력업체, 고객, 자본시장,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측면과 CEO 의지 강조
FKI-BEX	전국 경제인 연합회	윤리경영 자율진단 지표	윤리경영 제도 및 시스템,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및 파트너, 주주 및 투자자, 경쟁업체, 지역 및 국제사회	개별기업의 수준에 맞는 윤리경영 자기진단 가이드라인 제시

▶ 3면에서 계속됩니다.

윤리경영 스터디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1964년 설립된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enter)에서 기업의 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발간한 '복잡해지는 정보보안 문제'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복잡해지는 정보보안 문제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복잡성과 연관성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보의 사용과 전달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IDC에서는 기업에서 정보보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정보보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보보안은 얼마나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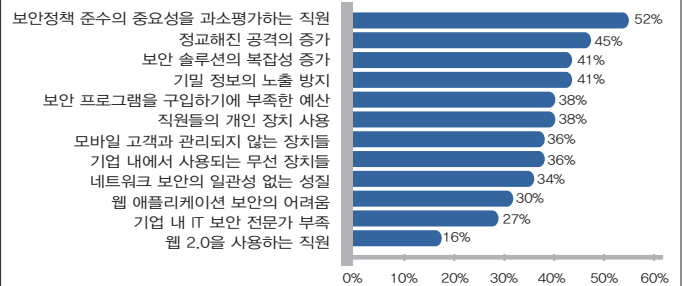
IT 보안의 범위는 기업의 네트워크보다 범위가 넓으며, 운영의 효율성과 전달에 있어서 모바일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2012년 시행되었던 IDC의 최종 소비자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11% 만이 보안 문제가 '덜 중요하다'고 답했고 30%는 보안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과제

기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나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 신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은 IT 보안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제이다. 다음 그래프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도전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업의 정보보안을 위한 도전 과제



상위 4개 도전과제와 시사점

- ① **보안정책 준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직원:** 기업에서는 데이터의 접근, 이동,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이해시키는 보안정책이 필요하다.
- ② **정교해진 공격의 증가:** 기업은 정교하고 복잡해진 공격을 무산시키고 장치와 데이터 등 기업자산을 보호하는데 최소의 자산만 사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③ **보안 솔루션의 복잡성 증가:**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그들의 아키텍처(컴퓨터 시스템의 구성)를 최대화하고, 보안 수준에 있어서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④ **기밀 정보의 노출 방지:** 시스템 또는 개인이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과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결어

보안과 관련된 문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보안 환경에 발맞추어 기업들은 기업 운영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와 시스템, 장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암호화와 같은 정보 보안 방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접근과 공격으로부터 기업의 정보, 그리고 소비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자사의 정보 보안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른 기업들의 정보 보안 문제를 다루는 방식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만큼 소비자의 정보 보안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2면에서 이어집니다.

- 윤리경영 내부 평가지표

기업 고유의 내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윤리경영 평가에 이용하면 기업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윤리와 관련된 단 1회의 사건만으로도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상시 위기의식을 갖고 예방 차원의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에 기업들은 외부지표와 내부지표를 함께 사용하여 윤리경영 평가를 시행하기도 한다. 포스코건설은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60점), 윤리팝업 시청률(10점), 사이버 교육(10점), 맞춤식 윤리교육(10점), Ethics Week 실시 및 토론 결과 제출(10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계행위 발생시 3~7점 차감(최대 10점), 이해관계자와의 만남 결과 등록 건당 0.05점 가점(최대 4점), 외부기관 수상실적 건당 1점 가점(최대 3점)을 부여하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K-Water는 공공기관 청렴도, KoBEX-SM 지수, 신뢰경영 지수 등의 외부지표와 해외사업 확대를 앞두고 해외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자체 윤리지수(KEX)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시키는 보상제도

윤리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과 위험관리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품권 지급이나 휴가 부여 등으로 보상하고, 윤리규범의 내용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윤리경영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은 기업 구성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시켜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푸른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우수 직원 보상을 통한 윤리경영 내재화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임직원 사회공헌 · 환경경영 활동'에 대해 이어집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속의 IT 업계의 윤리경영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찾고자 하는 정보를 이전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그만큼 빅데이터의 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들 또한 사회문제로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IT는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다루는 업종인 만큼 보안이나 윤리에 신경 써야 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 정보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IT기업들

스마트해진 현대사회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보 수집은 때때로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이러한 기술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례 1 기업의 매출 수단으로 이용되는 개인의 사생활

인터넷 지도 서비스 A기업은 세계 각지의 도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논란이 되었다. 거리 사진 보기 서비스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칠 정도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많은 회원 정보를 수집할수록 더 세분화된 광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광고비 단가를 높여 광고 매출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2 '알 권리' 만큼 중요한 '잊혀질 권리'

자신과 관련된 정보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내용에 대해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가 있으나 온라인에 무심코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감추고 싶은 개인사가 노출되는가하면 '신상털기'의 엉뚱한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한번 노출된 정보는 유통기한도 없다.

기업윤리 브리프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제2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및 '2014 해외 CSR 사업화 포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지속경영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구.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이 10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피라미드 계급 구조가 되어버린 IT산업 하도급

IT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IT산업은 하드웨어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부문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IT업계에는 아직 하도급거래의 보호 장치가 없어 많은 개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IT산업 생태계 속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는 눈물겨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례 IT업계 하도급업자들의 눈물

IT업계의 하도급은 '갑·을'을 넘어 '병·정·무·기·경·신'까지 내려간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피라미드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IT 노동자(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결국 한참 줄어든 돈을 쥐게 되며 불공정 계약과 고강도 노동, 잦은 임금체불은 덤이다.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치면서 사업대금에서 중개료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청업체로 파견돼 실제 개발 업무를 하는 IT 노동자는 원청에서 책정한 인건비의 3분의 1 정도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빅데이터를 위한 노력의 시작

반면, IT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정보보안 강화에 전력을 쏟는 사례도 많다. 몇 차례의 정보 유출 사태로 타격을 입은 IT기업들도 서비스 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사례 보안공격 막는 화이트해커의 중요성

보안업계에서 화이트해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화이트해커는 공격적인 목적을 갖고 IT인프라의 취약점 파악을 위해 모의해킹 등을 시도하는 일종의 보안전문가를 말한다. 보안사고의 위험이 커지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해 이들을 채용하거나 보안업체와 연계해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들에게 고객의 상금을 걸고 자사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밝혀보라고 유혹하기도 한다.

결어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1년 전만 하더라도 빅데이터의 보안은 불모지나 다름없었지만, 지난해부터 IT업체와 기업들이 이들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빅데이터 관련 기술과 보안 노력이 크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IT업체들의 보안사고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본 포상은 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참여로 국내 산업계 전반의 사랑받는 경영 활동의 기반구축 및 확산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다. 대통령표창에는 교보생명보험(기관부문)과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글로벌CSR부문)가, 국무총리표창에는 교통안전공단(기관부문)과 시지온(소셜벤처부문) 등 총 22개 기업 및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번 시상과 연계하여 진행된 '해외 CSR 사업화 포럼'(주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제1부 국제 CSR 요구 분석과 제2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및 사례가 소개 되었으며, CSR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을 통해 윤리경영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Q 불공정하도급 거래는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제재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마련되어 있나요?

A 불공정하도급 거래는 대표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또는 감액,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도급 거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관련 법령 준수와 동반 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 기업이 고유의 가치관 내지는 기업가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원래 불어의 기업가(entrepreneur)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으며, 혁신적이고 관리적 역량의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혁신, 성장, 창의성, 위험추구, 도덕성, 적극적 행동, 의사결정능력 등이 기업가 정신의 특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고자 하며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확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업가정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영 반부패 세미나’

한국과 영국 간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할 예정

-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 장소 : 서울 페럼타워
- 참가 : 11월 14일까지 메일 acrc@korea.kr 로 신청

한국기후변화학회 2014 하반기 학술대회

기후변화의 글로벌 이슈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와 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에 대해 다룰 예정

- 주최 : 한국기후변화학회
- 일시 : 2014년 11월 6일(목)~7일(금)
- 장소 : 경성대학교

BSR Conference 2014 Transparency & Transformation

투명성이 공급사슬, 에너지 및 기후, 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투명한 환경에서는 경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최 : BSR
- 일시 : 2014년 11월 4일(화)~6일(목)
- 장소 : The Grand Hyatt, New York

The 8th annual CR Reporting and Communications Summit 2014

지속가능성 리더들과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긍정적 변화를 창출하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가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최 : Ethical Corporation
- 일시 : 2014년 11월 13일(목)~14일(금)
- 장소 : Regent's Park Marriott Hotel, London



윤리경영 퀴즈

외부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윤리경영을 평가하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여 자사의 윤리경영 현황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중 대표적인 윤리경영 외부 평가지표가 아닌 것은?

- 1) KoBEX-SM
- 2) KEX
- 3) ISO 26000
- 4)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4번, 신고자 보복효과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양점남(did911@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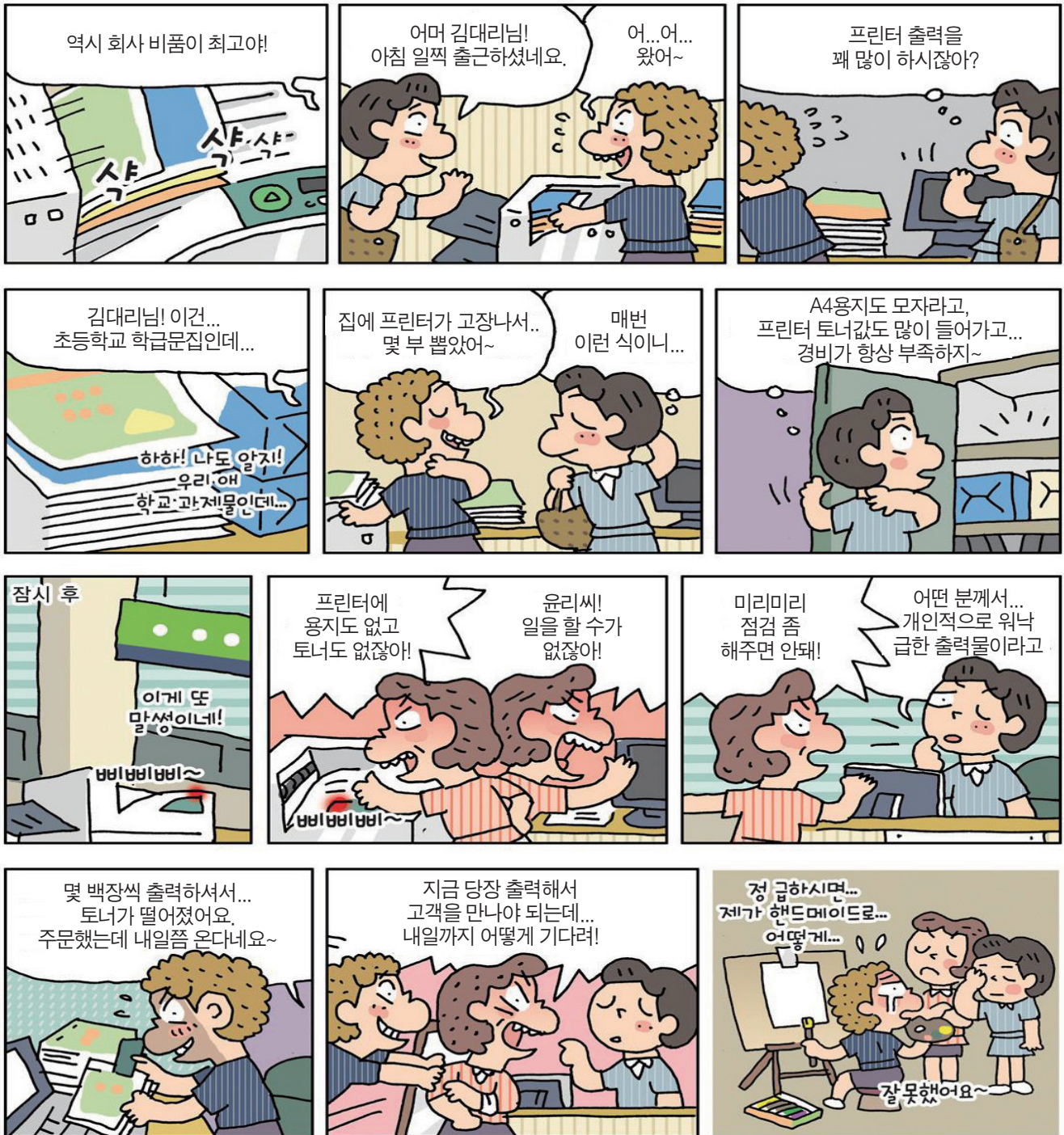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2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지는 함정아님, 임진섭님, 윤준상님, 김윤희님, 고경임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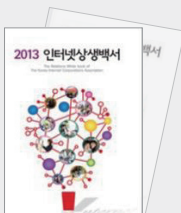
Yes 준비! Ok 윤리!

회사 비품은 개인용이 아니에요



회사 정보가 담긴 문서는 보안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중만)

새로운 책 소개



2013 인터넷상생백서

저 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출 판 : 유페이퍼
출판일 : 2014. 6. 24
정 가 : 무료(e-book)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와 경제적 합리성 -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철학적 반성

저 자 : 김영환
출 판 : 박영사
출판일 : 2014. 6. 30
정 가 : 16,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